

등록번호	재무과- 12978
등록일자	2016. 12. 20.
결재일자	2016. 12. 20.
공개구분	공개

결	주무관	재무팀장	재무과장 (간사)	재정위원장
재	영성희	김우석	김현래	임기진
협 조		사무국장	87명희	

2016학년도 제4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 회의 내용

1. 개의((開議) 선언 (위원장 17:00)
2. 2016학년도 제2~3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승인
 - 위원장: 전회 회의록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승인함.
3. 안건 심의
 - 가. 2017학년도 대학회계 재정운용계획안
 - 배태관 팀장: 회의자료에 의거 2017학년도 대학회계 재정운용계획안을 개괄적으로 설명함.
 - 송진규 위원: 2017학년도 대학회계 재정운용계획에 산학협력단회계 전입금을 2016학년도와 같은 금액(47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연구비 수주와 간접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현재 전출금 금액을 논의 중에 있으므로 확정을 보류하였으면 함.
 - 김현재 재무과장: 2017학년도 대학회계 재정운용계획안은 세입과 세출 운용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며,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설명함.
 - 서병재 위원: 수입대체기관 중 언어교육원의 본부 공공요금 최소납입률을 전년도와 같이 27%로 적용하였는데, 언어교육원은 타 수입대체기관보다 재정규모도 크고 재정적 여유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부 공공요금 최소납입률 상향 조정을 검토하였으면 함. 아울러, 수입대체기관 전체적으로 공공요금 납입률을 상향조정하여 대학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배태관 팀장: 수입대체기관 공공요금 최소납입률은 해당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2016학년도에 언어교육원과 평생교육원의 납입률을 3% 인상하여 두 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완소함. 특히, 언어교육원은 학교에서 필요한 ‘학생영어능력향상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일반 수입대체기관과 함께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수입대체기관의 공공요금 최소납입률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지만 해당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납입률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됨.
 - 전종현 위원: 대학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데 학교에서는 발전기금 등 재정확충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음
 - 김현재 재무과장: 재정확충을 위해서 등록금 인상, 발전기금재단 및 산학협

력단과 생활관 전입금 확대, 수입대체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음. 등록금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1조제7항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II 유형과 정부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가 제한되어 현실적으로는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음. 교육부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참여 지표를 완화해 준다면 타 국립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현저하게 낮은 의과대학 등 일부 단과대학의 등록금을 인상하는 등의 방안 검토가 필요함. 또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인상하여 수입증대를 도모하는 등 대학차원에서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음

- 서병재 위원: 최근 8년간 등록금을 5차례 동결, 3차례 인하하였으며 입학정원 조정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수입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인건비·공공요금 등 경직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렇듯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고 등록금 인상에 대해 교육부에 건의하였으나 교육부에서 국가장학금 II 유형과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를 변경하고 있지 않아 향후 교육부의 정책 변화를 보고 등록금 인상에 대하여 검토해야 함.
- 위원장: 대학운영과 교육을 위해서는 재정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가지원금 확보 및 등록금 인상에 대하여 총장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에 건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유창민 위원: 국립대학의 재정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부족한 대학재정 확충을 위해 국가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가지원금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등록금 인상에 대한 구성원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등록금 인상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먼저 논의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 위원장: 대학에서도 국가지원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그럼에도 국가지원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등이 변경될 경우 등록금 인상에 대해 구성원 간 논의하겠음.(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2017학년도 대학회계 재정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함.

나. 2016~2020 전남대학교 중기 재정운용계획안

- 배태관 팀장: 전남대학교 중기 재정운용계획안 요약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 위원장: 중기 재정운용계획안을 2017학년도 재정운용에 반영하는지 물음
- 배태관 팀장: 중기 재정운용계획안은 자체적으로 재정 흐름의 지표로만 활용하고 있음.
- 김원재 위원: 산단회계 예산이 2016년에 비해 2017년 금액이 많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물음
- 배태관 팀장: 산학협력단의 경우 회계연도가 이전에는 1월에서 12월이었으나 올해부터는 3월부터 익년 2월로 변경되어 차이가 있음을 설명함.
- 송진규 위원: 산단회계 전입금이 2016학년도 수준 유지로 되어 있는데 산학협력단의 적립금이 고갈된 상태이고 간접경비 예산도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2016학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함. “2016학년도 수준 유지”를 “적정 수준 유지”로 수정했으면 함
- 배태관 팀장: 중기 재정운용계획안은 5년마다 작성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작성되므로 산단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수정할 수 있음을 설명함.
- 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2016~2020 전남대학교 중기 재정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함.

다. 2016학년도 대학회계 세출예산 3차 이용안

- 재무과장: 회의자료에 의거 세출예산 3차 이용안 개요와 44개 기관 113건, 총금액 1,303,139천원에 대한 이용 사항을 설명함.
-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2016학년도 대학회계 세출예산 3차 이용(안)은 원안대로 승인함.

■ 기타 사항

- 회의록 간인 위원이었던 최웅용 위원이 금회 회의에 불참하여 김원재 위원이 이번 회의록에 간인하기로 함.

■ 폐회 선언 (위원장 18:10)

110 110 110 110

2016. 12. 14.

기록자: 서기 (재무팀장) 정 용 석

확인자: 간사 (재무과장) 김 현 재